

사 진 자 료

■ 왕의 휴식 : 을야지람

‘을야지람(乙夜之覽)’이란 밤 9시부터 11시까지 왕이 잠자리에 들기 전 휴식을 취하며 독서하던 시간을 말한다. 현대에 일과 삶의 균형(Work-life balance)을 맞추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당시에도 왕의 휴식 시간을 두어 삶의 균형을 맞추었다. 「왕의 휴식:을야지람」은 왕이 즐겼던 그 심야의 여유를 현재로 불러와 현대인들이 자신만의 휴식 시간을 가질 때 필요한 공예품으로 소개한다.



▶ <白-호롱>/오승환



▶ <白-침차>/오승환, 송예진

■ 왕의 의복 : 의금상경

‘의금상경(衣錦尚絅)’은 화려한 비단 위에 얇은 홑옷을 덧입어 화려함을 감추는 것으로, 조선 왕실의 복식에 있어 겉은 화려하지만, 그 속에서 항상 겸손함의 미덕을 갖추려 함을 의미한다. 「왕의 의복 : 의금상경」에 소개되는 작품은 안팎의 소재와 색상의 차이를 통해 아름다움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겹침의 절묘한 균형임을 보여준다.



▶ <의금상경-향낭>/권용현, 우승민

■ 왕의 공간

「왕의 공간」을 통해 소개되는 도자함, 향로 등의 작품은 조선 왕실의 건축, 조경, 능, 포장에서 발견된 색, 형태, 종류의 균형 감각을 이야기한다.



▶ <조선 왕실, 오색에 포장함>/나지선



▶ <나의 호위무사, 석수향로 시리즈>/이솔찬,